최병선 전북대 총동창회장 취임

취임사 통해 후배 위한 장학금 · 소외 이웃 지원 확대 강조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는 지난 13일 건지광장 문회루에서 제40대 최병선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정영택 전 총동창회장,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국주영은 도의회의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최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어영문학과 김경소 학생을 비롯한 14명의 학생들에게 총동창회 장학증서가 수여됐고, 제40대 총동창회 슬로건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당선작 시상에는 장태영 동문(사학과 84학번)이 제안한 '내일을 이끄는 전북대, 함께하는 총동창회'가 당선작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지난 2년 간 제39대 전북대 총동창회를 이끌며 '천원의 아침밥'의 효시를 만드는 등 전북대 발전에 큰 노력을 해 온 정영택 전 총동창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러 투자를 통해 장학재단을 더욱 튼실하게 가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모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재임 중 모교를 사랑한 선배님들의 흔적이 후배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백서 발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침을 거르고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후배들을 위해 CMS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39대 정영택 회장님과 함께 시작한 재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 지역을 넘어 전국 대학으로 확대되면서 자긍심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장은성기자

전북기계공고 졸업생 8명 현대차 최종 합격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생 8명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기계공고는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졸업생취업지원센터를 운영, 자기소개서와 대기업 면접 교육을 진행하는 등 채용 시장에 맞춰 졸업생들의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취업지원사이트(https://www.jobcmt.co.kr) 및 전라북도졸업생 앱 개설은 취업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어 졸업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학교의 한 합격생은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믿기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또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인현 교장은 "우리 학교는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의 전라북도 거점학교로서 졸업생들의 취업 지원을 적극 돕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여상 홍유빈, 특성화고 최초 한국은행 합격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이미원)가 도내 특성화고 최초로 한국은행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따르면 홍유빈 학생은 군산여상에 입학 후 학년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학년은 '플래닝 코칭' 과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시간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2학년부터는 공기업,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채반에서 사무와 금융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취업처 특강,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를 통해 취업 역량을 더했다.

3학년 때는 자기소개서 작성, 필기시험 준비, 모의 면접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목표였던 한국은행 취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홍유빈 학생은 "학교와 자신을 믿고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사회에 나가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원 교장은 "이를 계기로 최고의 취업처를 정복할 수 있는 군산여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적극 동참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14일 아침 8시부터 무주중학교와 무주중앙초등학교 등굣길에 진행된 교권 보호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이번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은 무주중학교와 무주중앙초등학교의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협의회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와 뜻을 모아 진행되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캠페인 홍보물과 어깨띠 등을 제작 지원하였다.

김승기 교육장은 가장 먼저 행사장에 도착하여 밝은 미소로 등굣길에 교사들과 학생들을 맞이하였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무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캠페인 직후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교별로 교장실에서 교육활동과 학습권 상호 존중 실천 약속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산내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남원시 산내면(면장 양인환) 관계자는 입석리에 거주하는 김순남씨가 지난 9월 11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고 이웃돕기 성금 1,000,000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풍족하지 않는 살림살이지만 고사리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한 수익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금번 기부행사에 동참했다.

김 씨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 함께 사는 산내면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인환 면장은 "기부하신 성금은 어머님의 바램대로 관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 사회복지대회 성료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무주군 사회복지대회가 지난 14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회복지법인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규평)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역복지 발전의 토대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와 윤정훈 도의원,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순옥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무주지역자활센터 라경숙 팀장이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주노인종합복지관 김순영 선임생활지원사는 무주군의회 의장상, 평화요양원 황하기 주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배소혜 맞춤형복지 팀장과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박경숙 사회복지사, 무주청소년수련관 전솔 청소년지도사가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최은선 선임생활지원사가 무주진사회복지사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홍민영 사회복지사와 무주군가족센터 하주희 가족상담사는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제17회 사회복지대회 개최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옥식)은 14일 관내 식당에서 '제17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각 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는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9명의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옥식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리다"며 "지속적으로 군과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문제 인식과 해결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우리 군의 번영을 이끌어 갈 자랑스러운 군민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고 영향력있는 복지 가족으로 적극 활동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삶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대 농식품경영학과, 법무법인 여원과 협약

전주대학교 농식품경영학과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여원(대표 변호사 최민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여원은 아태마스터스대회 감사, 전북도교육청 고문 변호사, 전주시청 재개발조합 실태조사 합동점검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여러 영역에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대 농식품경영학과는 농식품 6차 산업 및 경영체 운영, 관리 노하우 습득을 위한 프로젝트 및 실습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농식품 산업 전반 법률 자문을 통한 사업적 혁신과 발전 도모 △농식품 경영 법률 관련 설계 및 컨설팅 △상호 관심 분야 지식 정보의 교류 및 상생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새마을남원지회 등 나눔 · 체험 행사 개최

새마을남원시지회(회장 지정수)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윤정옥)는 지난 12일 남원거점스포츠클럽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진행되는 '두손가득 마음담은 밑반찬 나눔' 행사는 100여명의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와 부녀회 회원이 힘을 모아 추진된 행사로, 남원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25명과 송편만들기 체험 행사 '다문화가족 초청 송편빚기'도 함께 진행했다

지정수 새마을남원시지회 회장은 "글로벌 시대인 만큼, 남원의 다문화가정도 갈수록 늘어가는 실정이다. 낯설고 물설은 곳에서 뿌리내려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합과 어울림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정옥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박문제치유예방센터, 지역센터 평가 '최우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운영위원장 윤명숙)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위탁한 전국 13개 지역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매년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예방치유원은 올해도 지난 4월부터 5개월에 걸쳐 기획·집행·성과 3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사업계획 수립과 △지도점검 및 행·재정 관리의 환류 등 기획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집행·성과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3개 지역센터 중 최고 점수를 얻었다.

이 센터의 전북대 윤명숙 교수(사회대 사회복지학과)는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민의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K-heritage 그리고 '한복' 특별전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11일 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K-heritage 그리고 '한복' 특별전 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은 한복의 단순한 아름다움만을 선보이는 것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복의 인문학적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세계 문화 속에 한복의 우수함을 선보이고자 마련한 전시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장은성기자

전주교대 신임 보직교수 4명, 발전기금 전달

전주교육대학교 신임 보직교수들이 13일 발전기금 4백만원을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임 보직교수들은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고한중 교육대학원장, 최경은 학생처장, 정영식 기획처장, 정한기 도서관장 등이다.

이에 전주교대는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기부자의 뜻에 감사를 표했다.

신임 보직교수들은 "대학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대학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 경비원,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전주비전대학에서 15년 넘게 일한 경비원이 대학에 발전기금을 기탁해 화제다.

14일 전주비전대학교에 따르면 정문 안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양순성씨가 대학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양순성씨가 기부한 발전기금은 5년 여 동안 모은 것으로, 양 씨는 "요즘 학령인구가 감소돼 대학의 재정상황이 날로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매일같이 보고 들었다"며 "예전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로, 캠퍼스에 활기가 넘쳤는데 체감할 만큼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보며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